

#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으로 남북화해 도모”

북한에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 펼치는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이우호 회장



▲북한에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한국교회평신도 단체협의회 이우호 회장

**식**량난에 처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교회 평신도협의회(회장 : 이우호)는 지난 7월 30일 북경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나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사랑의 돼지 보내기 운동이 급진

전 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사랑의 돼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의 이우호 회장을 만나 그간의 추진 배경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대답을 가졌다. 이우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군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본회 수원·화성 지부의 회원이기도 하다.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펼친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회장:**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기근과 홍수 등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유랑하는 동포들이 늘고, 심지어는 굶어죽는 동포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 핏줄을 나눈 동포로써, 또 기독교인으로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에서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돼지 보내기 운동이 북

한국교회 재건과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일조하고자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와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회장:**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는 한국교회 32개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이고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동포를 돕기위해 특별히 돼지를 택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회장:** 돼지는 잡식성이라 아무것이나 잘 먹습니다. 특히 돼지 분뇨는 황폐해진 북한 땅에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북경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을때도 돼지 자체 보다도 돼지가 생산하는 분뇨가 퇴비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번식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을 덜기 위한 훌륭한 축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의 일종입니다.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과 복송 방법,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 회장:** 사랑의 돼지 보내기 운동은 약 1,000여 마리를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돼지 구입에 2억원, 사료 200톤 1억원, 운송료 및 기타 약 1억원 등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차량을 북한에 직접 보낼때는 추가로 3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사료는 (주)에그리브



▲이우호 회장(좌)과 김경웅 총무(우). 이들은 지난 7월 30일 북경에서 북한당국자와 만나 돼지복송 방법 등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했다.

랜드 퓨리나 코리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차량은 모 자동차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보내는 시기는 1차적으로 오는 10월 5일 추석을 전후해 500여두를 복송하고 성탄절에 500여두를 보낼 것입니다. 인도 방법은 판문점에서 차량을 통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지난 7월 30일 북한당국자와 만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중 특별히 밝히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 회장:**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이 현물을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돼지의 사육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목적 사용 확인을 위해 본회 임원 및 양돈 전문인의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돼지를 전달할 때 우리 측에서는 본회 임원과 양돈 전문인도 함께 입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가 남북 민간교류에 매개체로 쓰이는 거죠.

**-돼지 확보 방안 및 양돈인의 참여 방법은?**

**이 회장:** 우선 한국 32개교단의 교회들로 부터 후원금을 받아 돼지 구입비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모금 기간은 일차적으로 9월 중순까지입니다. 9월 하순에는 검역과 복송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는 교회에서의 지원외에도 일반인들의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1구좌당 2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의 크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돈인들은 현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지원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회장:** 조선 평양시 중화돼지 목장과 송림시 황해 제철소 돼지 목장입니다. 이곳에 지원 되는 돼지들은 제철소 노동자 및 자녀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돼지 사육 수익금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복지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 식량 증산을 위해 돼지 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에도 활용됩니다.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는 북한 당국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 회장:** 우리측의 뜻을 이해하고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돼지는 남한측의 종돈과 인공수정 기술도 함께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원되는 500여두의 돼지중에서 200여 마리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종축 후보돈과 인공수정용 기자재도 함께 보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의 애로사항과 양돈인들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 회장:** 북경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날때도 직접 당사자를 만나는 등 사랑의 돼지 보내기 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돼지가 충분히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양돈인들의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 최성현 과장 <養豚>